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8호 【루계 제2664호】

주체110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음력 8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정식동지, 전일호동지와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이 시험발사에 참가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여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우리 국가의 령토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7, 580초를 비행하여 1, 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과 미싸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총평 무기체계운용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되였다.

박정천동지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과이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국방부문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국방과학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응대하고 전망적인 전쟁억제력목표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정천비서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참관하였다.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싸일련대를 조직하였다.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싸일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행동절차를 숙달할 목적밑에 진행되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는 전국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된다고 하면서 군대와 해당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이 체계를 옳게 리용하기 위한 전법방안들을 부단히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싸일려단으로 확대개편할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대현대화로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싸일체계를 실전도입한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완전히 새롭고 다채로운 상상밖의 열병식》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과 언론들의 찬탄의 목소리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언론, 전문가들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은총비서의 미소로 시작되고 미소로 끝났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주목되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종일관 매우 만족한 웃음을 담으시고 열병식분위기를 경축의 양상으로 이끌어간것이라는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김정은총비서가 꽃다발을 드리는 남녀어린이를 다독이면서 그들의 팔을 끼고 환히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돋보였고 주석단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였다. 김정은총비서는 체육인종대의 행진과정을 쌍안경으로 살피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가 하면 청년학생종대가 등장하였을 때에는 련이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면서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사회안전군특별기동대종대가 말을 타고 등장하였을 때에는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만족한 표정을 보였다. 특히 열병식이후 진행된 야회가 마무리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석단을 향해 달려나오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쳤을 때에도 김정은총비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화답하였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총비서의 미소로 시작되고 미소로 끝났다.-

그러면서 열병식 전기간 김정은총비서의 시선은 열병식에 참가한 북주민들을 향해있었다, 김정은총비서의 환한 미소는 이번 열병식에 대한 만족의 표시인 동시에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끄떡없다는것을 과시한것이라고 토로하였다.

《웅근 하나의 예술작품》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은 명칭부터가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으로서 새롭고 지난 시기의 민간무력열병식들과는 달리 도별로농적위군은 물론 전체 비정규무력을 총집결, 출연시킨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평하였다.

특히 북의 열병식력사상 세번째로 되는 심야열병식으로서 독특하고 화려한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이다.

-시작부터 화려한 축포발사와 악대연주, 긴장감을 완화하고 친밀감을 주는 락하산병들의 기교강하, 비행기들의 교예비행 등을 통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던 과거의 열병식과는 거리가 먼 《축제》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전 열병식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비상방역종대와 군견수색종대, 농촌기계화초병종대와 같은 열병종대, 특히 뜨락또르, 소방차와 같은 장비들도 내보내여 열병식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열병종대들의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김일성광장에서는 평양시민들의 다채롭고 화려한 률동이 진행되고 열병행진이후 청년학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1시간동안 무도회를 열었으며 깊은 한밤중 열병식참가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연도환영까지 진행한것은 열병식이 아니라 웅근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은 성대한 《축제》를 방불케 한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은 완전히 새롭고 다채로우며 상상밖의 성대한 열병식이였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짧은 기간에 열병식을 준비할수 있는 능력 과시》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후 11개월만에 열리는 세번째 열병식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는 주로 정주년에 열병식을 개최하였지만 이번에는 정주년이 아닌 공화국창건 73돐을 맞으며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열병식개최방식의 관례를 깨버렸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게 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춘 로농적위군의 잘 째인 조직체계와 전투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북은 이번에 열병식을 규칙이나 관례에 관계없이 임의의 순간에, 짧은 기간에 준비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하였다.

《특유의 의엄을 과시한 열병식, 〈자력갱생열병식〉》

-이번 열병식에서 첨단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공개할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규모나 방식이 대폭 축소된 《조용한 열병식》을 진행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발신하는 군사적의미는 매우 크다. 규모는 작지만 대신 수백만명에 달하는 각 분야의 모든 비무장력을 대표하는 로농적위군 종대가 다 참가함으로써 북이 정규군은 물론 민간무력도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였다는것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 거대한 전략무기들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122㎜방사포와 첨단반땅크미싸일 《불새》로 무장한 로농적위군대렬이 등장하고 뜨락또르와 같이 유사시 무장장비로 전환할수 있는 현실성있는 농기계화종대가 나간것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온 나라를 요새화하고 전민을 완전무장시킨 군사강국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100%첨단저격무기로 무장한 수백만명의 병력과 직장, 단위별로 편성된 특수적위군까지 가지고있는 북민간무력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첨단전략무기들이 참가하였던 지난 시기의 대규모열병식과 완전히 다른 특유의 위엄을 과시한 열병식, 《자력갱생열병식》이다.-

《세계유일의 〈COVID-19〉청정국》

남조선언론들은 현재 변이비루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선진국》으로 자처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도 왁찐접종을 하고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있는것과 달리 북은 이번 열병식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수천명의 주민들을 참가시키는것으로 악성전염병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번 경축행사들에서 김정은총비서를 둘러싼 수백명이나 되는 로력혁신자들과 공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열병식행사에서 주석단에 오른 인사들은 물론 운집한 군중들중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야회에서 청년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악성비루스에 의한 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는 북이 이번에 경축행사장들에서 방역자신감을 과시한것은 국제사회앞에 밝힌것처럼 전염병환자가 한명도 없으며 악성전염병류입차단에 완전히 성공하여 《세계유일의 코로나청정국》이 되였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9월의 경축행사, 세계는 무엇을 보았는가

령도자와 꿈같은 시간을 보낸 근로자들

《오직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화폭이다!》

이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대한 연회를 펼쳐 축하해주시는 영상을 목격하고 공화국인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웨침이다.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뜨락에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까지 펼쳐주시며 혁연의 정을 부어주시는 이런 경이적인 사변은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이곳에서 얼마나 중대한 나라의 국사들이 의논되여왔던가.

그러나 국가급의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평범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뜨락에서 열린 연회에도 참가하고 령도자와 기념사진도 찍으며 한식솔처럼 어울려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였다.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돌아보아도 평범한 근로자였다.

인민의 존엄이 하늘에 닿아있고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 당도 있고 국가도 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 화폭이였다.

지금 자본주의사회를 놓고보면 인민은 버림받는 존재로 되고있다.

99%와 1%로 갈라진 사회구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은 극소수 특권층을 위해 복무하고 피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무지렁이신세와 다를바없다.

허나 이 땅에서는 인민이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떠받들리우고 국가의 최고중대사가 론의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의 뜨락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웃음짓고있는것이다.

머리에 백발을 얹은 과학자대표도, 인민들과 친숙해진 고령의 녀방송원도, 반백의 예술인도 어머니품속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들마냥 김정은령도자의 옷자락에 매달리고 따뜻한 그 손을 꼭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놓을줄을 몰랐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심부름군을 가지고있는 인민들이다.》, 《저런 나라에서 저런 인민으로 살고싶다.》

세상사람들이 터친 부러움과 찬탄의 이 목소리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어제는 피해지역의 인민들이 군당위원회청사의 처마아래에서 삶의 깃을 펴고 근심걱정없이 생활하였다면 오늘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렇듯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신 자식들마냥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순간들을 향유한것이다.

로동자대의원, 농민대표, 인민의 심부름군…

이것은 단순히 당중앙위원회뜨락만이 아닌 그 뜨락과 이어진 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는 세상에 없는 인민사랑의 부름,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신 인민의 나라에서만이 울려나올수 있는 값높은 부름인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온넋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며 고생을 묻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시며 걸으시는 길이 경애하는 원수님 특유의 위민헌신의 길이다.

그이께서 가슴이 한번씩 뭉클 젖어드는 행복에 잠기시는것도 오로지 인민으로 해서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것도 혈육처럼 사랑하는 인민들생각으로 해서이다.

공화국이 창건되여 어언 73돐, 그 뜻깊은 려정을 추억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경축대표들은 얼마나 뜨거운 회억을 더듬었던가.

이 땅우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의 날과 달이 가슴에 뜨겁게 젖어드는 순간이였다.

자신의 로고는 다 감추시고 경축의 밤을 밝히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실 때 오열을 터치며 만세를 부른 그들이였고 이 나라 인민들이였다.

그런데 주신 사랑 적으신듯 당중앙위원회뜨락에까지 불러주시여 온갖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니 그 자랑, 긍지를 안고 세상이 보란듯이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화폭의 주인공이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슴배여있다고 값높은 치하를 주실때 이들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자그마한 소행을 크게 여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에 목이 메여 뜨거움의 눈물을 흘리였다.

가장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들이 존엄높이 떠받들리우고 가장 좋은것, 가장 훌륭한것은 그들에게 차례지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겠는가.

사랑의 화폭에서 세인은 공화국의 과거만이 아닌 미래를 똑똑히 보고있다.

가마속의 물은 원천이 없어 끓다가도 없어지고만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대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찬란하고 휘황한것이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여 공화국은 인민도, 국가도 존엄높다.

본사기자 리 경 월

그들은 서로 달랐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하지만 경축의 광장에 높이 모신 령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그들의 환호성은 꼭같았다.

그밤, 거대한 하나를 이룬 인민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경축의 밤에 이 나라 인민이 세계에 준 충격은 어떤것이였으며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게 되였는가.

누군가 말했다.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는 예민한 청우계와도 같다고.

그만큼 인민은 령도자의 헌신적자세와 풍모에서 인민에 대한 그의 진정을 가늠하는것이며 그것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자기의 심장의 문을 열고 령도자를 따라나서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그밤은 바로 세상사람들에게 심장의 문이 아니라 령도자에게 심장을 통채로 맡기고 따라서는 인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보여준 감동깊은 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병광장의 주석단에 모신 그 순간부터 흐르는 분분초초 어느 한순간도 그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의 모습, 흘러내리는 눈물 웃자락을 다 적시건만 닦을념도 하지 않고 두팔높이 《만세!》를 부르는 인민의 모습, 한발자욱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이를 뵙고싶어 김일성광장의 이쪽저쪽에서 원수님계시는 주석단을 향해 어푸러질듯 달려가는 청춘남녀들의 그 모습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사는 이 나라 인민의 참모습이다.

진정 열병식과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된 그날밤의 모습은 어느 이름난 연출가도 문장가도 방불하게 그려내기 어려운 참으로 진실하고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그런 진실하고 감동적인 화폭들을 어찌 9월명절의 그밤만이 간직하고있는것이겠는가.

얼핏 생각만 해도 스치는 모습들이 있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우며 가슴을 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만세!》를 부르던 군인들의 모습,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격정의 눈물 하염없이 흘리며 《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인민들의 모습,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웨치던 전쟁로병들의 모습,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던 소년단대표들의 모습, 수재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리시여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던 피해지역 인민들의 모습…

꼽자면 끝이 없는 그 모습들은 조국땅 방방곡곡, 이 나라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함께 새긴 명화폭들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조선의 모습이다.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시는 그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온 한해 쉬임없이 멸사복무의 길을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인민은 남녀로소 누구나 그이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럼없이 따라나서는것이고 《김정은동지 만세!》를 심장으로 부르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축의 밤에 울린 《만세!》의 환호.

정녕 그것은 이 나라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모든 날들에 다지고다진 신념의 분출이였으며 이는 오직 공화국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 사상감정이다.

본사기자 리 연 선

조선의 강력한 민간무력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9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열병식은 향토방위,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전투대오,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장성강화된 민간 및 안전무력의 위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 열병식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민간열병종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잘 째이고 세련된 열병종대들의 보무당당한 행진모습, 정규군에 못지 않는 무장장비들이였다.

세계언론들은 열병식에 대해 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정규군의 위력과 우수성을 과시한 위력한 열병식》,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비정규군의 전투력을 과시》, 《강력한 자위적 민간무력을 가지고있는 군사강국이라는것을 국제사회에 각인》,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강한 힘을 보여준 열병식》 등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세인이 격찬하였듯이 이번에 진행된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대원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는 로농적위군 대원들이다.

평시에는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의 열병대오에 못지 않게 절도있으면서도 기세차게 행진해나가는 위풍당당한 모습은 민간무력의 전투력과 단결력이 얼마나 높고 강한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휴대한 무장장비들과 뜨락또르에 실은 포무기들을 비롯한 기계화종대들의 우렁찬 동음은 공화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음을 과시하고있다.

하기에 열병식을 본 공화국의 주민들은 저마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시금 실감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국가방위에서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자위적무력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이라고 하시면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로농적위대가 전투력있는 불패의 대오로 장성강화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온 나라를 소왕청유격구처럼 만들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고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간무력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로 로농적위군은 마치와 낫, 붓과 함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은 민간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오늘 로농적위군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령도아래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정예화, 현대화되여가고있으며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그 위력이 이번 열병식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9월에 진행된 로농적위군 열병식을 보고 외국의 한 인사가 조선의 민방위무력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은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민간무력만 가지고서도 능히 이길것이다라고 평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로농적위군의 전투력과 위력은 비할바없이 더욱 강해지였다.

이번 열병식을 보고 세계가 정규무력에 못지 않게 자기의 체모를 갖춘 그쯘한 무장장비와 조직체계 등 비정규무력의 위력을 세계앞에 과시한 군사적의미를 가진다고 평한것만 보아도 공화국의 민간무력이 얼마나 장성강화되였는가를 립증해주고있다.

탁월한 령장의 슬하에 더욱 강철같이 자라난 로농적위군안의 전체 대원들은 만약 적대세력들이 이 땅에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용약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기개로 가슴끓이고있다.

최 진 옥

령장을 모시여 국기도 빛난다

얼마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있은 성대한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우리의 국기가 창공높이 게양되고 세차게 휘날릴 때 나는 격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사람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높이 게양되는 국기를 바라보며 나는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 때에 우승하고 람홍색공화국기가 이국의 하늘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짓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나 존엄높고 자랑많은 우리의 국기인가.

이 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띄우려고 우리 체육선수들은 훈련으로 땀을 흘리고흘리며 국제무대에 나가 경기도 한다.

나도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떨치기 위해 마라손주로를 힘차게 달려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고 람홍색국기를 높이 떠올렸다.

그 국기가 9월의 성대한 경축광장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안고 자랑스럽게 게양되고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국기도 나라가 강해야 지켜지고 빛날수 있다.

외세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잃었던 암흑의 그 세월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하고서도 기쁨이 아니라 나라없는 설움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불쌍한 조선민족이였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고있으니 어디서나, 어느때나 힘차게 휘날리고있는것이 우리의 람홍색국기이다. 9월의 경축광장을 도도히 누빈 민간 및 안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을 보면서도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나라가 강하고 국기도 빛난다는 철의 진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우리의 국기를 이 땅우에, 세계의 창공높이 펄펄 휘날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나날 나를 비롯하여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친히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불러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연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몸소 축배잔도 부어주시였으니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정말 한없이 고마우시고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자애로운 우리들의 친어버이이시다.

오늘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나라의 체육은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체육선수들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쳤다.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녀자마라손선수들속에서 정성옥선수와 같은 우승자들이 나오도록 할데 대해 말씀하셨고 또 언제인가는 나를 비롯한 우승자들이 신진선수들에게 좋은 경험도 배워주도록 할데 대해서 이르시였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승의 계주봉을 물려주기 위해 진할줄 모르는 힘과 열정으로 쟁쟁한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있다.

공화국기가 빛나는 시상대의 높이이자 나라의 높이이다.

나라와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달려 공화국기를 휘날린 그때처럼 선수, 감독들의 체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앞으로 우승의 금메달로 나라의 명예를 더 높이 떨치는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는 당 제7차대회에 대표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로력혁신자,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최상최대의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정 성 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륙상협회 서기장)

‖ 절세위인의 명언 ‖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가 저애하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자와 매국노가 갈라지게 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운명개척의 천하지대본이다.

단결된 민족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번영을 이룩할수 있지만 민족이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문제로 나서며 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명백한 기준으로 된다.

외세의 강요에 의해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대단결을 떠나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각이한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동족사이에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앞세우며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 70여년간의 민족분렬사가 남긴 쓰라린 교훈이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통일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조국해방 70 돐기념 민족통일대회 (2015 년 8 월)

조국통일은 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국통일문제는 서로 련관되여있으며 상대적독자성을 가진 두가지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민족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민족내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분렬되여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북과 남사이에는 적지 않은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대결이 커갔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을 타고앉은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실현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분렬주의세력을 내세워 단독《정부》를 조작하였으며 그들을 부추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이 전쟁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계속 틀고앉아 분렬주의세력을 부추겨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소동을 끊임없이 벌렸으며 저들의 식민지지배에 방해되는 통일애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의 력대 반통일세력들은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조작해내고 마구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는 한편 《북진통일》,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민족대결책동에 광분하여왔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피줄과 언어가 같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신하고 대결하며 살아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이고 또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이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초래된 사상과 제도, 정견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결코 하나의 민족내부에서 서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오래동안 헤여져 살면서 생겨난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지나온 력사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민족적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통일에로 가는 과정이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 바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단합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겨레가 일시적으로 겪는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겨레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하는것은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에게 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큰것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이어오면서 형성된 민족의 공통성이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합한다면 능히 통일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하여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록 어제날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오늘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반통일보수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의 격화는 민족적참화를 초래하기마련이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장 인 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해외동포인사들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후 해외동포들 속에서는 민족단합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공화국을 찾는 인사들이 늘어났다.

김성락목사

그러한 환경속에서 1981년 6월말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 고문이였던 김성락목사가 평양에 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사로 매우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그를 만나주시고 목사의 부친의 반일운동경력과 목사의 미국에서의 애국활동을 평가하시고 공화국의 건국력사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숭미사대주의의 해독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북남조선 전체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몇천년동안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외세가 결코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고, 우리는 북과 남이 련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목사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돌아가서 미국국회 의원들과 부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해외에 있는 동포인사들과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비행장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출발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의 현실을 직접 보고 모든 오해를 깨끗이 풀었다고 하면서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우에 가꾸어놓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자기의 인생전환을 피력하는 진정어린 고백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평양을 다시 찾아온 김성락목사부부를 크나큰 은정과 믿음으로 대해주시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그의 공적을 평가하시여 조국통일상수상자 대렬에 세워주시였다.

《배달민족회》 회장이였던 최덕신선생도 평양행을 결심하면서 비로소 민족을 위하는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최덕신선생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인 그는 8.15전에 중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당군대의 독립대대장(대령)을 하였으며 조선전쟁시기에는 남조선군 사단장, 군단장, 정전담판 《국군》대표, 전후에는 군단장, 외무부 장관, 서부도이칠란드대사, 1970년대초에는 《반공련맹》 리사장 등 《반공》일선에서 물러난적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후 《유신정권》과 결별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해외동포들의 공화국방문흐름을 타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늦게나마 통일애국의 옳바른 길을 찾아 평양을 방문한 그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의산최동오선생에 대하여 뜨겁게 회억하시였다. 그리고 민족앞에 머리를 들수 없고 선친을 위해 온갖 은정을 다 부어주신 주석님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씀을 올리는 그에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 나라가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우리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하여 한몫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큰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하시면서 다음번에 올 때에는 부인과 함께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참으로 최덕신선생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반공》으로 얼룩졌던 곡절많은 그의 운명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새봄을 안겨준 재생의 빛발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런 사랑과 은정속에서 그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영주하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불치의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절을 겪어온 《배달신보》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의 삶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으로 되게 해주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빛내여주시였다. 재능있고 명망높은 음악가 윤이상선생도 그 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걸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었다.

이밖에 림창영과 차상달, 선우학원, 배동호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한몸에 받아안고 북과 해외의 련대실현과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며 자기들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고 영 식

최홍희선생 (가운데)

나라가 통일될 그날은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바라는것이 통일이고 또 그만큼 알고싶은것도 통일의 날이다.

통일은 언제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속에 품지 않아본 조선사람은 없을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쯤 통일될것이라고 제나름의 예측도 했고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과연 민족의 최대소원이 성취되는 감격과 환희의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맞히는 방법은 없을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이 물음에 수십년전 명쾌한 해답을 주신분이 계시니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주체89(2000)년 8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을 때였다.

그때 한 언론사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뜻밖의 질문을 드렸었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모두 흠칫 놀랐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즉석에서 예언을 바라는것과도 같은 일종의 무례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사실 반세기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루지 못한 조국의 통일이 언제 된다고 그 누가 꼭 찍어서 결론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려운 질문도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통일시기는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가 하고 마음을 조이던 남측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경탄의 빛이 일었다.

알고보면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하거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의 시기를 한마디로 천명해주셨으니 그들이 받아안은 감동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참으로 조국통일의 가장 곧바른 길을 다시금 밝혀주신 명해답인것이다.

그때로부터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교시는 겨레가 가는 통일진군길에서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통일발걸음을 드높이고 있다.

김 성 숙

단상

졸 업 작 품

《래일 18시에 우리 통일역에서 만나자요.》

어제 저녁 대학정문을 나서며 정순동무는 출퇴근길에 자주 지나게 되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창작과 관련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던 끝에 우리는 전형적인 중간양각의 부각형식을 구현한 평양지하철도 통일역의 부각작품들을 참고해보기로 하였다.

오래지 않아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를 졸업하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졸업작품은 말그대로 자기의 예술적재능과 실력을 스승들과 부모들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계기가 아닐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준비끝에 통일역을 찾게 되였다.

과연 우리가 찾은 통일역의 부각작품들은 하나하나가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고 세련된 명작들이였다.

매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속에 깃든 창작가의 고뇌와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려고 애쓰고있는 나에게 정순동무가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마치 펄펄 끓는 심장의 피를 쏟아놓은것 같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항쟁의 거리에서 기발을 쥔 청년대학생의 억센 두손, 치마폭에 돌을 가득 담은 녀대학생의 불타는 눈동자.》

격앙된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말을 듣느라니 문득 조국통일과 잇닿아있는 항쟁의 거리에서, 감옥에서, 형장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남녘의 항쟁용사들과 통일혁명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우렷이 안겨왔다.

부각작품들에 비낀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읽어가던 우리들의 눈앞에 나어린 소년의 모습이 안겨왔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던 소년이 문득 싸움터에서 쓰러진 통일애국투사를 형상한 부각을 자그마한 손으로 조용히 쓸어보는것이였다.

여느때 같으면 철부지어린이의 호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모습이였지만 그때는 마치도 우리에게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선렬들의 고귀한 생과 넋은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흘러들게 될것이며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철리를 새겨주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통일된 강토우에서 행복한 래일을 창조해가며 평화롭게 살고싶은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심장속에 저 부각작품들처럼 깊이 새겨지고있다.

심장속깊이 간직된 그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오늘도 유명무명의 통일애국투사들은 선렬들의 넋을 이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그 길에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책임진 우리 새 세대들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자.

바로 이것이 통일역을 찾은 우리가 새겨안은 소중한 의무감이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겨레앞에 굳게 다지는 새 세대들의 맹세였다.

그 길에서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친 선렬들처럼 굴함없이 꿋꿋이 싸워나갈 맹세를 담아 나와 정순동무는 우리들의 졸업작품을 조국통일주제의 조각작품으로 하자고 하였다.

외세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통일된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떨쳐나선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들을 형상할 그 조각작품의 이름도 우리는 《통일의 광장에서 우리 만나자!》로 정하였다.

밤은 깊어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져가고 어느덧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여온 그 시각 나는 정순동무에게 보다 깊이있는 작품토론을 위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 래일 통일역에서 다시 만나자.》

강 춘 성

서론

력사외곡과 일본의 미래

뻔뻔스러운 력사외곡풍조가 일본을 또다시 어지럽히고있다.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은 교과서를 출판하는 기업체들이 제출한 《교과서내 표현 삭제 및 변경수정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결과 중, 고등학교들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에서 《종군위안부》라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위안부》로 변경되고 《강제련행》이라는 문구는 《징용》 또는 《동원》으로 바뀌게 되였다.

력사적진실이 외곡된 이러한 교과서의 출판은 지난 4월 정부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절하다. 〈강제련행〉됐다고 표현하는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공식 채택한데 따른것이라고 한다.

당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휘밑에 력사외곡이 굳어진 사회적풍조로 되여가고있는 일본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 되살아난 군국주의의 추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세계가 경악할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특히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하고 잔악하기 그지없는 반인륜범죄이다.

처녀들은 물론이고 가정부인과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닥치는대로 끌어가 침략무리의 성노리개로 삼은 야수의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력사에는 크고작은 침략행위들과 전쟁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20만명이나 되는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동물적욕망과 침략열기의 고취를 위해 전쟁터로 끌고다니며 릉욕한 야만들은 없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거나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잔인하게 학살한 죄악은 또 어떠한가.

일제의 강제련행, 랍치범죄는 국가적범위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그 규모와 수단, 방법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야수적인 만행이였다.

몇개의 단어를 빼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어물쩍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엄청나고 피맺힌 원한이 서린 반인륜, 반인권적인 죄악이고 타민족말살범죄이다.

아마 일본은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처럼 여기게 된다는 궤변에 아직도 미련을 품고있는것 같다.

력사교육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세계관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어떤 력사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옳은 길로 나갈수도 있고 나쁜 길로 나갈수도 있다.

침략과 범죄의 력사, 그에 따른 파국적 후과와 교훈은 다 없애버리고 외곡된 력사와 극단적인 군국주의로 교육된 무지하고 기형적인 새 세대가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본에는 《장래생각을 하지 않는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재침야망실현을 위해 미래의 주인공들을 자기들과 같은 반인륜, 반인권의 야수들로 키우려고 혜덤비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이 속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 필

민심을 기만하는 패륜패덕한 무리

부패야당을 감싸는 선거개입의혹사건

남조선정국이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여야당간, 후보들간의 경쟁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고발사주》의혹사건이 터져 더욱 혼잡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문제의 《고발사주》의혹사건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윤석열이 검찰내의 자기 심복을 시켜 여당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주면서 형사고발을 하도록 부추긴 사실을 어느 한 언론이 폭로하면서 터지게 된것이다.

언론은 윤석열의 심복이 당시 《미래통합당》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현 《국민의힘》 의원 김웅에게 전달한 자료문건들도 공개하였다.

사실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과 〈국민의힘〉이 유착된 전형적인 윤석열게이트(부정부패사건)》로 락인하면서 《국민의힘》의 사죄와 윤석열의 후보사퇴를 요구해 나섰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들인 윤석열과 야당인물에게 문건을 넘겨준 심복, 문건을 넘겨받은 김웅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거를 내놓으라.》,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뻗치면서 지금의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등장한 고발장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고 당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해 여당인사를 형사고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우기 이번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것으로 하여 《고발사주》의혹사건이 진짜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추진단》을 내온다, 자체조사를 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지만 이미 깨진 사발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심복과 김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피의자로 정식 립건한것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된타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과 여론은 이번에 또다시 터져나온 선거개입의혹사건은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보수야당의 본성과 그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평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국민의힘》과 그의 조상들은 력대로 선거부정행위를 밥먹듯 해왔다.

멀리로는 리승만의 3.15부정선거가 있고 가깝게는 선거쿠데타로 불리운 18대《대선》시기의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국민의힘》의 조상들이 저지른 선거부정행위는 수두룩하다.

이러한 전적을 가진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찰과 작당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은 그리 새삼스러운것이 아니고 역시 싸리끝에서는 싸리밖에 나지 않는다는것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으로 민심의 배척을 받게 될가봐 전전긍긍하며 《야당죽이기》, 《정치탄압》이라고 고아대며 사건을 뒤집어보려 하지만 썩을대로 썩은 고름이 터진것이다.

밖으로는 다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내부에서도 도마뱀꼬리자르기식으로 윤석열의 후보사퇴와 출당 등 매장시키려는 암투가 치렬해지고있어 《국민의힘》이 지금의 엄청난 정치지진을 꽤 견디여내겠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가지 명백한것은 《국민의힘》이 운운하는 《공정》과 《정의》가 사기협잡, 부정부패와 일맥상통한다는것이다.

차은혜

응당한 대접

남조선의 청년층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있다고 한다.

특히 권력을 되찾겠다고 나선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선》 예비후보들이 랭대를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인 윤석열이 20, 30대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채 표류하고있다고 하면서 청년세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 《정부》정서를 드러내고있지만 그렇다고 야권후보들을 지지하진 않고있다고 하였다.

제 대접 제가 받는다는 속담그대로인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의힘》에서 나선 《대선》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들보는커녕 서까래감도 안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윤석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방류지지, 《주 120시간로동제》실시주장, 어려운 사람은 부정식료품을 급식해도 일없다는 식의 발언을 비롯하여 내뱉는 소리란 전탕 초보적인 사회정치흐름도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망언의 련속인것으로 하여 《무지몽매한 윤석열》, 《사람잡는 후보》라고 비난을 받는가 하면 몰상식하고 비문화적인 행태로 하여 《도리도리 윤석열》, 《쩍벌》이라는 오명으로 조롱받고있다. 여기에 처, 장모의 부동산투기의혹, 주가조작의혹, 측근들의 부정부패의혹 등 련이어 꼬리를 무는 각종 부패범죄의혹들은 또 어떠한가. 최근에는 검찰총장재직당시 측근들이 보수야당패들에게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여 《공정》, 《상식》을 곧잘 외우던 윤석열에 대한 남조선청년층의 혐오감은 극도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또 다른 《대선》예비후보인 홍준표도 마찬가지이다. 홍준표가 제입으로 청년층에게서 마치나 지지률이 오른것처럼 떠들고있지만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내부분쟁으로 초래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있다.

하기는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일찌기 성폭력범죄에 가담하였고 성완종부정부패사건에 련루되여 재판까지 받은적도 있으며 지난 《대선》때에는 《세월》호유가족들을 향해서 《아직도 〈세월〉호를 대선에 리용하고있다.》고 나발불고 낮은 지지률을 공개했다고 하여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도둑놈xx》, 《지랄한다.》, 《집권하면 응징하겠다.》고 폭언하는 등 누구도 못 말리는 《망언제조기》로 소문난 홍준표의 운명이라고 달리 될수 있겠는가.

개꼬리 삼년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력대적으로, 체질적으로 독재와 부정부패, 사기협잡으로 얼룩진 극우보수의 본당 《국민의힘》내에서 온전한 인물이 나오기는 만무하다.

남조선청년들이 적폐의 집합체인 《국민의힘》에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응당한 대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박영길

남조선언론이 대미굴종행위를 비난

남조선에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당국의 대미굴종을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인것은 정부나 여야정당 할것없이 지구촌정세의 근본적변화를 거의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있다는 점이다.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는데 길들여져 다른 생각을 못하니 끌려만 가고있다.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긴장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그러면서 언론은 내외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바람에 정세가 더욱 악화되였다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본사기자 한일혁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기조차 두렵다》

최근 남조선에서 군내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이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TV극은 륙군헌병대산하 탈영병체포전담조성원들이 구대원들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신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남조선군에 만연되여있는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였다고 한다.

남조선 해당 인터네트언론이 평한것처럼 현재 TV극이 시청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는것은 그 어떤 특이한 주제나 특출한 배우의 예술적 형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군에 심각하게 만연되고 은폐되여있던 어두운 현실을 사실그대로 보여주기때문이라는것이다.

윤일병폭행사망사건, 임병장총기란사사건 등 대형사고들이 련이어 터져나온 2014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TV극에서 신병이 코를 골며 잔다는 리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들이대거나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실신할 정도로 구타하는 장면, 각종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는 장면 등 폭력행위 장면들은 남조선군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취급한것이고 지금도 하나의 풍조로 만연된것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남조선군내부에서는 신병과 하급에 대한 구대원과 상급의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성폭력이 일상사로 되고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및 자살사고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있다.

올해에만도 공군녀성부사관성추행사건, 해군녀성중사성추행사건 등 성폭력사건이 련이어 일어나 남조선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각종 폭력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선택을 한 군내 자살자는 전체 사망자의 76%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불과 열흘전에도 집단따돌림과 구타, 폭언에 시달린 해군의 일병이 휴가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선택을 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하기에 TV극을 본 남조선 주민들은 극을 보는 전기간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하였으며 정신장애가 올것 같았다, 지금의 현실과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 실지 군대에서 실시간 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것 같다,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기조차 두렵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했다고 한다.

본사기자 안권일

국제문제

아프가니스탄철수가 시사하는 몇가지…

지난 8월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다.

철수인가, 패주인가

2001년 9.11사건이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침공하였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지난 20년동안 2조US$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10여만명이상의 병력과 첨단군사장비를 동원하였지만 10년만에 빈 라덴을 겨우 사살하였을뿐 미군 2 450여명, 미국시민 3 850명이 즉사하고 2만 700여명의 미군이 부상당하는 등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20년전 쫓아냈던 탈리반세력의 재집권을 눈을 펀히 뜨고 막지 못했으며 890억US$를 들여 아프가니스탄정부군을 무장시켰던 각종 군사장비들로 고스란히 탈리반을 무장시켜주는 꼴이 되였다고 한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이 도망치듯 하였다고 한다.

믿을수 없는 미국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철수로 미국은 자기 리익밖에 모르는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삽시간에 전세계에 확산되였다.

그것은 또한 손아래《동맹국》들에게 불안한 그늘로 덮쳐들었다.

특히 보호자 없이는 한시도 못사는 철부지같이 미국의 가랭이를 놓지 못하는 남조선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남조선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는지, 미군유지비를 더 섬겨야 하지 않겠는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지 하고 떠오르는 가지가지의 억측들로 하여 불안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동맹관》이 일방적으로 동맹국들을 보호하던 전통적인것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맹관》으로 바뀌였다고 분석하기도 하면서 남조선이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에 깊숙이 관여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기도 한다.

정규군도 아니고 소총과 류탄으로 무장한 탈리반과 전략폭격기, 무인공격기와 같은 첨단무기를 들이밀면서 20년간이나 악전고투를 하다가 패주할수밖에 없었던 미국에 계속 매달리는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겠는가.

침략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한 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교훈: 〈시계를 가진자와 시간을 가진자〉》를 실었다.

거기에 실린 탈리반성원들의 말이 미국이 패할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해준다.

《당신들은 시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 당신의 시계는 축전지가 나가면 바늘이 멈춰서겠지만 우리의 투쟁의 시계는 멈추는 법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미군이 이곳에 도착하면 바로 초시계를 눌러 귀국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부터 잰다. 그런 미군과 달리 우리 젊은 전사들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성스러운 명분으로 리상적인 삶을 산다. 그들은 시간이나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승리를 향한 끝없는 투쟁만 생각한다.》

《우리 전사의 60%는 너무 어려 9.11사건이나 탈리반의 붕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침략자가 있고 그 앞잡이가 나라를 통치하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적들을 격파해야 한다는 사실만 생각한다.》

언론은 침략전쟁은 결코 승리할수 없다는 진리가 또다시 증명되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웰남전쟁때처럼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평하였다.

리성심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남조선에서 정계라는 울타리안에서 권력다툼질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을 때 사회에서는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인민들의 고달픈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날을 따라 상승하고있는 물가와 천근만근으로 내려누르는 가계부채 등으로 하여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방송 《KBS》가 9월 2일에 전한데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달 련속 년중 최고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언론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1년전보다 2.6% 올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1%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하다가 7월과 8월 두달 련속 년중최고수치인 2.6%를 기록했으며 특히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7.8%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전하였다.

9월 6일 남조선방송 《CBS》는 지난 7월기준 식료품물가상승률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가운데서 4번째로 높고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하였다.

이런 속에 얼마전 《한국은행》이 악성전염병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2020년 5월 0.5%로 내렸던 은행금리를 0.75%로 올린다고 발표한 소식은 주민들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

악성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남조선에서는 대다수의 가정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빚을 내면서 가계부채총액이 1조 7 000억US$에 달하였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만 보아도 부채가 1년새 132조원로 불어났다고 한다.

그로 하여 극단적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달픈 호소를 한다는것이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주민들과 령세기업들의 리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어려움만 더욱 커지게 되였다, 운영자금부족이나 생활난 등으로 빚을 낸 민생경제에 금리인상은 폭탄만 던지는 격이 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고있다.

《언제 회사에서 해고될지, 자영업자의 경우 언제 가게를 닫을지 무섭다.》, 《사교육비와 집값부담이 너무 커 삶이 팍팍하다.》는 서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목소리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는 무정한 정계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일것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

사진으로 보는 고유한 미풍량속

연띄우기며 제기차기를 비롯한 흥겨운 민속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 설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조선절을 올리는 귀여운 어린이들, 치마저고리를 입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앉아 윷놀이를 하는 녀성들의 모습…

보면 볼수록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는 긍지가 가슴가득 차오른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생활양식과 풍습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고유한 민속전통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련면히 이어지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웃들간에 정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왔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는것을 미풍으로 여겨왔다.

부모들을 잘 모시고 처자들을 사랑하며 웃사람과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것, 손님을 잘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것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였어도 우수한 민속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공화국을 찾은 한 해외동포는 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차넘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 많은 나라들에서 고유한 민족전통들이 사멸되여가고 있지만 조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누구나 자기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이 땅에서 민족의 고유한 향취, 유구한 전통과 풍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가야금과 더불어 삶을 꽃피우며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민족악기를 만들어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중에는 가야금도 있다.

이 악기는 6세기 초엽 재능있는 음악가 우륵이 가야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가야금은 줄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얻는 악기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연주법이 다양하다.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자세가 률동적이고 아름다워 민족적향취를 짙게 풍기는 가야금은 오늘도 널리 리용되고있는 대표적인 민족악기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지금도 해내외동포들은 몇해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화려한 무대에서 울리던 가야금소리를 잊지 못하고있다. 거기에 참가하였던 세명의 남자 가야금수중에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민족악기연주가후비들을 키워내고있는 경남철도 있다.

지난 기간 여러 예술공연무대에 출연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은 그는 자기 딸에게도 가야금을 배워주었다. 저녁이면 그의 가정에서는 가야금소리가 울려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예술축전에서 그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는 미묘한 울림이 나오는 가야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자랑일뿐아니라 인류문명이 창조해놓은 보물중의 하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남철은 말한다.

《우리 민족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는 그 어떤 악기로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악기연주가들을 많이 키워내여 민족음악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해나가렵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흥성이는 조선옷점들

공화국의 각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옷점들이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갖가지 장식기법들로 훌륭하게 만든 결혼식옷과 명절옷들이 진렬대에 한가득 걸려있는 조선옷점들 그 어디라 할것없이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옷감을 골라들고 형태며 색갈에 대하여 봉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녀성들을 볼수 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는 처녀들이며 결혼식날에 입을 첫날옷을 맡기러 왔다는 녀성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보는 녀인도 있다.

《옷이 날개라더니 살구꽃무늬를 새긴 치마저고리를 입으니 네 모습이 더 예뻐보이는구나.》

《화려한 조선옷을 해입으니 어머니가 한결 더 젊어진것 같아요.》

《우리 조선녀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만큼 잘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

조선옷점의 봉사원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주문하러 오는 녀성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옷을 입고 기뻐하는 녀성들을 볼 때면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긍지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한뜸의 바느질에도 정성을 고이고 꽃 하나를 수놓아도 온갖 지성을 기울이게 된다고 자랑을 담아 이야기한다.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색배합, 한껏 기울인 정성이 한눈에 안겨오는 여러가지 색갈과 무늬의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고 기쁨에 웃음짓는 녀인들의 모습은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혜 성

흙냄새나는 조선의 토장국

—평양토장국집을 찾아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고유의 기초식품인 토장은 독특한 풍미와 뛰여난 영양가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평양토장국집은 토장으로 여러가지 맛좋고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났다.

기자와 만난 이곳 식당의 박금향책임자는 《음식맛이 좋자면 맛좋은 장을 써야 한다. 〈장이 달아야 국이 달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와 같은 속담도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식생활에서 장을 매우 중시해왔다. 특히 토장에는 단백질, 기름질, 탄수화물 그리고 펩티드, 아미노산, 사포닌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토장 30g을 섭취하면 인삼 2g을 먹는것과 맞먹는다는 말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곳 식당에서는 자체로 만든 토장으로 두부시래기토장국, 소고기토장국, 두부매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한다.

그는 음식을 만들 때 토장을 두면 잡냄새를 없애고 감칠맛과 구수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좋아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다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식탁마다 손님들이 김이 문문 나는 토장국과 토장으로 만든 료리들을 마주하고 땀흘리며 먹는 모습이 인상깊게 안겨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인 최영범은 《아무리 맛있는 고기국도 계속 먹으면 물리는데 토장국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고 계속 찾게 되는게 우리의 전통적인 토장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중구역 동안1동에서 산다는 서춘삼로인은 《입맛을 돋구어주는 토장을 먹으면 힘이 솟는것이 알린다. 뭐니뭐니해도 우리의 토장국맛이 제일이다.》고 하며 웃었다.

하나의 음식상에서도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비껴오는 풍경이였다.

남의것보다 자기의것으로 만든 고유한 민족음식을 더 달게 들며 더 좋아질 래일을 마중가는 이것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행복넘친 생활이 아니랴.

본사기자 림 광 훈

민족유산과 풍습을 대를 이어 지켜간다

법운암과 더불어 10여년

평양의 룡악산에 가면 력사유적관리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가는 신철룡, 리미경부부를 볼수가 있다.

만경대구역민족유산보호관리소 법운암관리원들인 이들부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법운암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높은 뜻을 받들고 오랜 세월 하루와 같이 귀중한 력사유적을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10여년전 신철룡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를 졸업하고 이곳에 처음 배치되여왔을 때 그에게 민족유산의 귀중함을 새겨준 사람은 묵묵히 력사유적을 지켜온 관리원아바이였다고 한다.

순간순간 조국애, 민족애로 심장을 끓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처럼 한생을 값있게 살리라 굳은 결심을 다진 신철룡, 오늘도 그의 지향은 변함이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가는 이들과 같은 참된 애국자들에 의해 우리의 문화유산들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씨름명수들이 많이 나는 고장

공화국에서 민족체육종목인 씨름 하면 의례히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가 화제에 오르군 한다. 그만큼 이 고장은 씨름과 더불어 흥하는 고장, 씨름명수들이 많이 나오는 고장으로 소문이 났다.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로동의 쉴참에 작업반별, 분조별씨름경기가 이채를 띠고 진행될 때면 농장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떨쳐나 응원에 열을 올린다. 빗장걸이, 호미걸이, 왼궁둥배지기 등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구경하려고 읍주민들까지 찾아오고있다.

제10차 인민체육대회 비교씨름에서 1등을 한 리정철, 제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60kg급에서 우승한 림태명과 같이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씨름명수들도 이 고장에서 나서자랐다. 2014년 대황소상을 쟁취한 조명진선수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씨름경기들에 출전하는 평안북도팀에는 룡천군 사람들, 특히 신암리사람들이 많다.

본사기자

꽃펴나는 민족문화전통, 사라져가는 민족성

2015년 촬영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적인 생활풍습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겨레의 사상감정에 맞는 귀중한 재부들이 빛을 뿌리고 민족의 정서에 맞는 생활기풍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의 거리를 걷느라면 푸른 합각지붕을 떠이고 높이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이며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인민문화궁전, 을밀대와 련광정, 보통문을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과 귀중한 력사유적들이 눈앞에 어려온다.

어디 그뿐인가.

윷놀이, 연띄우기, 팽이치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이 적극 장려되고 해마다 민족료리경연들이 활발히 진행되여 사회적으로 민족음식문화가 활짝 꽃펴나고있다.

이 땅에서는 노래를 불러도 제 선률로 부르고 춤을 추어도 제 장단으로 추며 옷을 입어도 우리 민족의 옷을 입고 인사를 해도 조선절을 한다.

정말이지 가는 곳마다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페부로 느낄수 있다.

하기에 《민족과 나》라는 책에서 최덕신선생도 말했고 단군릉의 층계에 올라 재미녀류기자도 말했으며 인민대학습당의 합각지붕아래서 로씨야의 한 작가도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 민족의 얼이 살아숨쉰다고.

민족성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문화와 력사,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

아무리 우수한 전통이 있다고 하여도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점차 사멸되기마련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허무주의가 만연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사라져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다문화사회건설》로 국제결혼이 장려되여 혼혈인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양키문화와 왜색왜풍이 범람하여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고유한 민족의 넋이 점차 사멸되여가고있다.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버림을 받고 보고 듣고도 리해할수 없는 외래어, 잡탕말이 범람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기관명칭과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출판물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영어표현들과 잡탕말로 지면을 채우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 생활용어 1 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탕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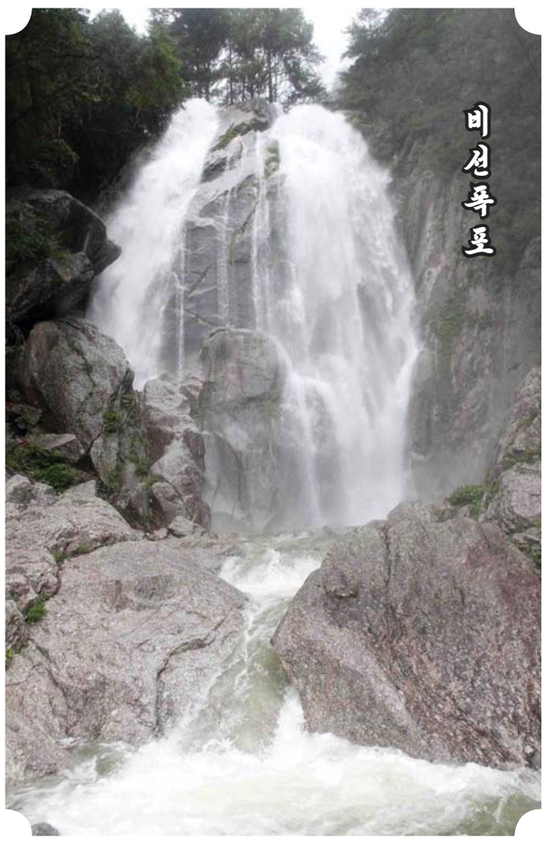
비싼 상품일수록 외국어로 상표를 다는것이 류행으로 되고있다. 소비자는 분명 남조선사람들인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국어 상표를 경쟁적으로 다는것이다.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회제도의 현실은 공화국이야말로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진정한 민족의 보금자리임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족의 존엄과 넋을 빛내여가는 긍지높은 생활, 그래서 공화국인민의 생활은 그토록 아름다운것이고 이 나라 인민은 그것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며 견결히 지켜가고있는것 아니랴.

오 영 철

외래어와 잡탕말이 범람하는 남조선의 거리



이 땅은 그 어디나 다 절승경개이지만 그중에서도 묘향산은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와 널리 알려져있다.

사람들은 산의 기묘한것을 금강산에 비기고 산이 웅장한것을 지리산에 비겼지만 묘향산은 그 기묘함과 웅장함이 한데 어울린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실로 묘향산은 예로부터 《8만 4천봉》이라 불러오듯이 웅장하고도 기묘한 수많은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숙한 계곡들과 높은 벼랑, 수정같이 맑고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들, 울창한 수림과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는 여름철의 짙은 록음, 가을의 눈부신 단풍, 겨울철의 설경, 여기에 뭇새들의 지저귐과 여울물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 어디를 보나 뛰여난 절경을 이루고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묘향산을 조선8경의 하나로 널리 자랑하여왔으며 묘향산에서도 여덟곳의 뛰여난 경치를 《묘향산 8경》으로 꼽아왔다.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한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산일뿐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고 민족문화유산들이 수많이 있으며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하여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건설되여 명산으로서의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묘향산에서도 가장 뛰여난 절승을 이루는 곳은 묘향천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솟은 련봉들과 기암들, 골짜기풍치로 이름난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 등 계곡들과 수많은 폭포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우아하게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문화유산들이 집중되여있는 신향산일대이다.

묘향산에는 묘향산력사박물관, 비로봉답사숙영소, 향산호텔, 묘향산건식매대, 묘향산약수터 등이 있다.

또한 상원동, 만폭동, 비로봉에 오르는 등산길이 마련되여있으며 탐승로들에는 자연경치에 어울리면서도 탐승에 편리한 안전시설들, 휴식터, 휴식각 등이 구비되여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서정시

삶과 조국

오 설 악

한가지 일을 해도
그것이 조국을 위한것일 때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마음은 무등 기쁘더라
날듯이 즐거움 샘솟더라

그리고 보는이 없을 때
남몰래 하는 일일 때
기쁨은 갑절로 커지고
사는것이 끝없이 자랑스럽더라

날마다 차례지는 조국의 은혜
그저 받는것이 죄스럽구나
어머니조국
허리띠 조이며 마련한것이기에
그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기에

조국이 나에게 베풀어주는것
하늘땅만큼 크고큰데
내가 조국에 해놓은 일
티끌보다 작고작아라

생활의 길엔 갈래많아
망설인적도 있어라
험난한 가시덤불 가로놓일 때
조국앞에 주저할번 한 부끄러운 순간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는 말
나를 두고 생겨났는가
어머니사랑이 영원하듯이
자식의 효성도 무한해야 하거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삶에 뜻을 주고 길을 주고
원하는 모든것 다 안겨준
아 어머니조국을 위함이라면

받은것만 맘속에 깊이 새기고
바치는건 혼연히 잊어버리며
조국위해 이 한몸 티검불 되는것이
내 삶의 의미이며 보람이여라

그렇게 유한없이 살다가
나에게도 생의 저물녘이 오면
그 순간도 헛되이 맞지 않으리라
조국에 값높은 보탬이 되게
죽음도 삶처럼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영원하리라
어머니품에 웃으며 잠든 자식은
한생의 시작도 전부도 마감까지도
조국에 바쳤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더 잘 살려나가겠다

우리 민족은 고대시기부터 하나의 말과 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왔다.

조선어는 처음부터 평양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이 땅에서 문명의 시작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겨레의 동질성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평양문화어는 민족적특성이 높이 발양된 언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어휘정리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불필요한 한자말과 외래어들이 고유어로 다듬어져 평양문화어가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게 되였다.

평양문화어는 현대의 요구에 맞게 세련된 규범적인 언어이다.

평양문화어는 어휘와 표현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풍부화되고 세련되였다.

오늘날 평양문화어는 말소리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적으로 세련되였다.

평양문화어표준발음법이 세워지고 평양문화어화술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발음과 억양, 말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문법구조와 문체분야에서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세련되여 말과 글의 간결성과 정확성, 명료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표현성과 형상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인 평양문화어의 우수성과 순결성을 보장하며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안 순 남

공화국의 품속에서 어려서부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4.25체육단 탁구선수로 성장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2013년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단연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는 예선단계와 본선경기로 나뉘여 진행되였으나 국제탁구련맹이 발표한 세계순위에 따라 예선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선경기에 직접 참가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여러 단계 경기들에서 불같은 공격전을 들이대여 련승하였다.

이들의 련전련승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특히 준결승경기는 매우 치렬하였다.

준결승경기에서 회전점수 0:3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지만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4회전부터 위력한 공격전을 줄기차게 들이대여 상대팀을 완전히 제압하고 마침내 경기를 승리로 결속하였다.

이어 결승경기에 나선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상대팀의 특기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대담한 선제공격을 들이대여 마침내 세계패권을 쟁취하고 금메달을 긍지높이 안아올렸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2014년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도 맞다드는 상대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존엄높은 공화국기발을 누리에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사랑하노라 (7)

글 렴 예 성, 그림 김 윤 일

나는 천천히 실험실문을 열었다.

청소를 시작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자 맑고 청신한 공기가 기다렸다는듯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뾰족한 하얀 구두가 보였다.

하얀 양복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

《저… 정인동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떨려났다.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플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 유정이라는 동무에게 좀 전달해주십시오.》

처녀는 하얀 멜가방에서 종이용지를 수십장 꺼내들었다.

《보조제분석결과》라고 씌여진 글자를 보는 나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이건 뭔가요?》

《이건 정인동지가 출장을 가기 전에 우리 분석연구소에 부탁하고 간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출장을 갔다와서 맡긴 시료들을 분석한것이고 이건 다른 나라의 파마약과 우리 파마약의 대비분석지표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유정이라는 동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가 우리 파마약의 시험생산을 부정했던 바로 그날부터 분석결과가 적혀있었다. 놀라움이 온몸을 휩쓸었다.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부정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자기것뿐아니라 나의 연구과제까지 맡아서 연구를 했단 말인가?

수입제와의 대비률 99%, 99.3%, 99.5%…

나의 분석표가 떠올랐다.

수입제와의 대비률 74%, 75%, 78%…

우리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것일가? 바로 여기서부터…

그는 99.5%도 만족할수 없었지만 나는, 이 홍유정이라는 자기만족에 잘 빠지는 처녀는 78%에서 만세를 불렀던것이다. 나에게는 우리 실정에서 그만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존재하였던것이다.

《원쑤들은 저들의 제재와 압박속에서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는데 습관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자기것에 대한 긍지가 허물어지고 그 긍지로 떠받들던 우리 제도가 허물어지길 바라서 그토록 피눈이 되여 날뛰는거요.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 인민이 인정하는 세계 일류급의 우리의것을 만드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앞장서야 하오. 주체화는 우리 조선의 운명이요!》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이 순간 쟁쟁히 귀전을 쳤다. …

얼핏 창문쪽으로 머리를 돌리던 나는 소리없이 굳어졌다.

까만 가방을 어깨에 걸친 그가 구내길을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심장이 못견디게 활랑거렸다. 왜 이렇게 허둥거려질가?

수삼나무잎새들속에 피뜩 가리워진 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려지게 되였다.

청사로 꺾어드는 순간 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것이 보였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의 제1경쟁적수가 졸업하는 날 자기는 정인의 재능에 탄복한다며 기념으로 주었다는 저 시계. 그 어디에 있건 시간이라는 공간속에 함께 존재하는 한 자기는 반드시 김정인이를 이기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저 사람은 말했다지. 좋다, 하자.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존엄을 위해 나는 당신과 끝까지 경쟁할것이며 자본주의 너를 영원히 이길것이다!…

저 시계의 초침소리에서 그는 지금 이 시각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세계를 느끼고있을것이다.

발전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세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밟히우고 남에게 먹히우는 세계, 남의 노예가 되는 세계이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조선의 사회주의발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제국주의의 숨가쁜 발악소리를 그는 저 시계를 통해 시시각각 느끼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정인은 달리고있다.

내가 대학의 수천명학생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쓸적에 그때 벌써 그의 꿈은 세계를 이기는것이였기에.

고요한 복도를 울리며 그의 침착한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있었다.

4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였다. 이미 만세를 부른 그것이 허위였음을 순간마다 아프게 자신에게 증명시키는 치렬한 전투였다.

한달이 지나갔다.

연구조에 망라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쏟아부어 진행한 132번째의 실험이 드디여 결속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다 일찍 퇴근하였다.

나는 거울앞에서 오래도록 머리를 빗었다.

까맣고 윤기도는 소담한 머리채우에 반짝이는 코스모스 빈침 하나를 올리꽂는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록색의 자그마한 손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방안에는 오늘 실험한 파마약이 자그마한 하얀 용기에 들어있었다.

분원구내길을 또박또박 걸어갔다.

어느덧 푸른 잎새를 펼친 수삼나무들이 정렬하듯 늘어선 구내길을 10분정도 걸어가면 과학원정문을 나서게 된다.

이제 이 정문을 나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가?…

잠시후에 나는 미용원의 대형유리창문앞에 서있었다.

몸좋고 수다스러운 미용사는 오늘도 여전히 입과 손을 다같이 열심히 놀리며 한 녀인의 머리를 해주고있었다.

자리가 나자 나는 그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미용의자에 앉았다.

《아니, 전번에 왔던… 참, 머리를 하자고 왔겠지요?》

《예, 그런데 어머니, 전약을 가지고왔습니다.》

미용사의 얼굴표정이 언짢게 찌프러졌다.

무슨 처녀가 이렇게 타산이 밝담? 하는 못마땅한 눈빛이였다.

전통적인 민속명절 추석

추석의 유래

음력 8월은 들판의 오곡백과 무르익고 풍성한 가을걷이의 기쁨을 흐뭇한 마음으로 내다보는 즐거운 계절이다.

음력 8월에는 우리 민족의 민속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있다.

추석이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긴데로부터 생긴 말이다.

추석을 가위날 또는 한가위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을의 중간, 가을의 큰 명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올해의 추석은 9월 21일이다.

추석음식 송편

우리 선조들은 추석이 다가오면 잘 익은 올벼를 베여다가 찧어 떡가루를 만들고 송편을 빚었다.

송편에는 소의 종류에 따라 팥송편, 깨송편, 대추송편, 송기송편이 있었으며 쑥, 송기, 대추 등을 다지거나 물을 우려내여 만든 5색 송편도 있었다.

송편을 찔 때 까는 솔잎은 송편끼리 엉켜붙는것을 막고 솔잎향이 떡에 배이게 하여 송편맛을 좋게 하였으며 떡겉면에 솔잎무늬가 새겨지게 하여 보기에도 좋게 하였다.

최근에는 송편이 탄수화물이 적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있다.

추석날 달구경

추석날이면 달구경 또한 이채를 띠였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밤이면 벼이삭 설레이는 언덕너머로 떠오르는 유난히도 밝은 둥근달을 바라보며 제나름의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를 짓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겨레의 다양한 정서생활과 풍만한 가을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밤에 달이 밝으면 그해 발곡식이 잘될것이라고 좋아하였고 구름이 끼면 발곡식이 잘 여물지 못할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이다.

신 진 혁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